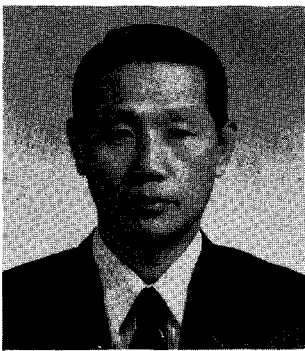


# 질병방제로 양계업을 보호하자



이 창 구  
(한국바이올화학  
동물의학연구소장)

기차가 철길을 고정적으로 달리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또는 그 이상의 학업을 쌓고나면 편리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안이하고 고정적 생활을 영위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힘들고 부지런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여 쌓아올린 많은 투자를 단 한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스러운 양계업을 택하여 험난한 생업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상당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이라하면 우선 벼농사, 또는 채소와 같은 경제작물 재배를 생각하고 있다. 양계업은 농업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간혹 눈에 띄지만 농업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현재까지 주곡생산시책에 밀리고 눌려서 제대로 크지 못했던 우리 양계업이 제나름대로 성장하느라고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른 것은 사실이다. 이제 우리의 국민소득이 2,000불대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3,000불대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야말로 우리 양계업계도 서광이 보일 때가 돌아올 우리업계 것으로 누구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으니 우리의 식량도 이제부터는 양(量)에서 질(質)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희망찬 앞날이 우리 양계업계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희망과 더불어 많은 문제점 또한 우리앞에 가로놓이게 되는 것도 어쩔수 없는 추세이기도 하다.

국민경제가 발전하면서 노동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의 상승은 양계사료나 기구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재값을 들먹이게 되고, 그 결과로 양계산물의 수요증가 이상으로 생산가격이 높아지

게 된다. 이와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양계업을 어떻게 지탱해 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우리사회의 경제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수입 개방이나 수입의 자유화에 너무나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평소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쉽게만 생각하다가 양계산물의 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기미가 보이면 곧 외국으로부터 양계산물을 수입해서 시장가격을 조절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짜증스럽고 또 어처구니가 없다. 물론 우리업계도 서로가 협조하고 단결해서 양계산물 가격에 큰 변동이 오지 않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결코 우리 양계업계가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모든 사리가 그러하듯이 경영 경제도 이론과 실재를 잘 감안하고 조화시켜서 시책을 펴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걸핏하면 엄포를 놓아서 다스리기를 일삼는 관계당국자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해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귀한 외화를 소비해서 우선 발등의 불은 끌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항구적인 시책과 업계의 노력이 없으면 몇 달 후에 또 다시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마련이니 넉넉지 못한 외화를 소비해서 임시 방편만을 만들겠다는 사고방식은 없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 업계에 소개된 외국 닭의 품종만도 수십종이나 된다. 물론 각 품종간에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또한 크고 작고간에 능력의 차이가 있으나 외국품종이란 우월성(優越性) 때문인지 다같이 잘 보급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외국닭의 품종이 보급되고 있다는 느낌

이 든다. 오늘날과 같이 상호경쟁이 치열하고 양계산물의 생산가격 절감을 기하여야 할 때에 좀더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품종도 선택 하고 또 사양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양계사육 농가들은 각자의 경험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집착하고 있지않나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선진 과학기술과 보편적인 경험과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험과 새 지식과의 조화는 양계 산업 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기술잡지는 물론이고 외국의 기술정보도 신속히 얻어내서 소화흡수하여야만 어려운 양계산업의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경향각지의 양계농가를 돌아보고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한결같이 닭의 질병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피해방지가 어느 양계장에서는 큰 이슈로 되어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어떤 양계장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곳에 가서 각종 질병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질병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료를 배달해주는 화물차가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을 퍼뜨리고 있으니 질병전파의 크나큰 원인이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양계산물의 수송과정을 통해서도 꽤 많은 위험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먼 옛날의 양계를 돌이켜보면 분명히 농가의 부업도 되지못할 정도로 각 농가마다 몇 마리의 닭을 사육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사육농가는 질병에 대해서 무관심 하였고 질병방역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은 전혀 없었으며 경영상의 힘도 허약하기 짝이 없었다. 따라서 질병

**오늘날 우리 업계에 소개된  
외국닭의 품종만도 수십종이나 된다.  
각 품종간에는 각기 능력의 차이가 있으나  
외국품종이란 우월성 때문인지 잘 보급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외국종이 보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방역이란 전적으로 국가 책임하에 있었고, 그 것도 한우나 젖소에 한정돼 있었으므로 닭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책도 기술도 없었다. 그와같은 옛 모습은 196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서구문명의 도입과 더불어 양계업도 집단화, 단지화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기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변천에 따라 다두(多頭) 또는 집단사육의 경험이 적은 우리 양계업계가 여러가지 나쁜조건 아래서 양계의 근대화를 서두르다보니 의견상으로는 근대화의 궤도를 따르고 있으나 경영면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차질을 가져오기도 했고, 특히 질병예방이나 방제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초심자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집단유전학(集團遺傳學)을 응용한 새로운 품종육성 제도에 의하여 개발된 종계가 도입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닭 품종의 육종효과는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양계사료 문제도 가축영양학의 발전에 따라 균형잡힌 배합사료가 실용화되면서 우리의 사료업계가 성실하게 생산만 해준다면 가금영양(家禽營養)상의 문제도 거의 해소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품종에 완벽한 배합사료를 급여해도 예상했던 바와 같은 수익은 오르지 않고 또 신선미가 넘쳐 흐르는 새로운 장소에 마련한 양계시설도 2~3년만 지나면 생

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닭의 보건 상태(保健狀態)와 질병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근대화에 따라 도로교통이 발전됨으로써 생계나 양계산물이 급속하게 그리고 광범위한게 이동됨에 따라 닭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질병은 발생하자마자 전국에 쉽게 퍼지게 되는 까닭에,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질병방역제도는 오늘날의 질병 발생과 전파를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 한가지 예가 1982년 경기도 일부 지방에서 발생한 전염성 후두기관염(I.L.T.)을 들수 있는데, 이 병은 발생하자마자 순식간에 전국에 퍼졌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으면서 해마다 양계농가에 출혈(出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행정부도 업제도 별다른 묘안이 없었다. 다만 대유행을 저지시키고 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였을 뿐이었다. I.L.T.의 발생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또 다른 질병에 의해서 재연(再演)될 가능성이 많으며 양계업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경계하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양계업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질병으로 인한 막대한 폐사와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산란저하를 예방하는데 있는 것이다. 질병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사료와 노동력이 허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마다 닭의 숫자가 늘고

**앞으로 국가방역의 일부를 자체방역으로  
전환시켜야 할 시대가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데  
양계업계가 분담해야 할 부분은 세가지로 집약된다  
양계시설과 기구를 철저히 소독해야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그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 늘어만가는 질병의 종류를 누가 어떻게 다  
루느냐 하는데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질병의 발  
생과 전파를 극소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양계업계가 발전하게 되면 질병방제를 위한  
위생을 담당하는 국가나 공공기관도 뒤따라 발  
전되어야 하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  
다. 따라서 국가방역(國家防疫)의 일부분을 자  
체방역(自体防疫)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될  
시대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국  
가 방역의 일부를 민간베이스로 전환 시키는데  
있어서는 방역사업의 구역(區域)을 합리적으로  
분담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양계업계가 분담하여야 할 부  
분은 세가지로 집약된다. 그 하나는 각 양계장  
마다 우수한 소독약으로 양계시설과 기구, 특히  
생계(生鷄) 수송상자와 난좌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각 양계장에서는 여하  
한 일이 생기더라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  
여야 하는 것이다. 또 예방접종을 하였다 하더  
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즉 닭의 건  
강상태에 따라 예방접종 효과도 구구각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양계업자는 잘 인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계장을 경영하는 모든 사람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다음 반드시 그 효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1984년도에 양계협회가 가축위생연구소의 협  
조를 얻어 실시한 혈청사업은 하나의 좋은 모델  
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실시  
하는데는 막대한 국가예산의 지원이 있었으며,  
그와 같은 국가예산의 지원은 계속해서 기대하  
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부분  
을 양계업자가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  
는 것이다. 즉 자신이 사육하고 있는 닭으로부터  
혈청을 자신이 채취해서 혈청항체가(血清抗  
體價)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까지 송부하는 책  
임을 각 양계장이 분담하고 나머지는 국가나 기  
타 시험기관 또는 가능하면 백신을 생산한 “메  
이커”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다. 이 문제는 쉬운것 같지만 꾸준히 실천하  
는데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자체방역이란 그야말로 닭을 사육하는 업자  
가 자신의 닭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닭의 건  
강을 유지시키고 그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게 함  
으로써 위생적 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한  
편 자신의 양계 경영을 개선하는 하나의 발전책  
이라고도 할수 있다. 양계협회를 구심점으로 하  
고 여러 관계기관과 단체가 다같이 협조해서 가  
금질병방제에 더한층 힘을 기울일 때가 온 것이  
다.※